

# 사설

## 화장 권하는 까닭은

본사(本社)는 올 한해 동안 생명나눔 실천회와 공동으로 "삶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시다" 캠페인을 벌인다. 불교 전통장례의식인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생명을 나누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그 첫 행사로 서울의 방생도량 도선사에서 입훈기도에 동참한 2천여 불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법회를 열었다.

불자가 화장을 받아들이고 사후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교의 전통에서나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럽고 타당한 선택일 뿐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불자가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국토이용율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바로 호국불교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사후에 장기를 기증할 사람에게 제공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사신공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숭고한 보살행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국토가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아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은 국가발전의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도 국토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묘지의 점유면적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화장하는 방향으로 계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까닭은 매장을 선호하는 유교적 전통과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영향,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이라 심리적 부담감, 나아가 조상의 묘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성공한 후손들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관습이 이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좁은 국토가 매년 여의도 넓이만큼씩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 없다는 점에서 장례의식으로서 매장이나 화장은 단순히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가 후손들에게 화장해 줄 것을 유언한 사건은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의 사회적 관습에서 볼 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사건 이후 화장을 선호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그런데 화장을 희망한 사람들을 종교별로 비교해 본 결과 타종교인(가톨릭 81.4%)들에 비하여 불교인(60.2%)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고 한다.

사실 불교의 장례법은 부처님 당시부터 화장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그러한 원칙은 지금도 승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불교신도들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불교의 신행태가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자기가 믿는 것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신도들의 이중적 신행태는 불교발전을 위해서나 불자들이 국가발전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불교가 아무리 무상과 무아를 말하고 보살행을 외쳐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공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자 개인의 각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앞으로 이 뜻있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단위 사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신행단체 군포교에 관심

## 법당건립-물품지원-위문행사 등 활동 다양

군장병 포교를 중점사업으로 활동하는 신행단체가 늘고 있다. 신행단체들은 군법당 건립에서 물품지원, 위문, 자원봉사활동, 도사나 교계신문보내기 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법당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수)는 28일 강원도 22사단을 방문하여 첫 군부대 위문행사를 갖는다. 교불련은 창립 2년을 맞는 올해의 중점사업을 군부대 위문행사로 정했다. 또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모임(회장 이종호)도 6일 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회비를 매달 군법당을 찾아 장병 위문행사에 사용키로 했다.

심우회(회장 김병원)와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운동수)는 군법당건립이 적극 나서고 있다. 성불회는 소모임을 만들어 매달 미련한 불사금을 군법당에 보내고 있다. 심우회는 21일 전국사단중 유일하게 법당이 없는 경기도 7사단 호국철마사 법당준공식을 봉행한다.

고양시 보현가족(회장 이일심)과 대불청 경기지부(지부장 문성열)는 훈련소 군법당을 찾고 있다. 보현가족은 매일 마지막 주 일요일 9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법당에서, 경기지부는 매주 일요일 51사단 훈련소법당인 호국달마사를 찾아 훈련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군부대에 불사와 신문물을 보내는 단체도 있다.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만호)는 93년 창

립이후 불서보내기 운동을 펼쳐 12만여권을 보냈다. 신수회(회장 이영자)도 하루차집을 열어 1차로 법보시금 1백62만원을 12월 7일 본사에 기탁했다.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올해 '군법당에 차한잔보내기' 캠페인을 벌인다. 군법당 지원운동으로 일반사찰에서 쓰고 남은 향, 초를 수집하기도 한다.

(0355)832-0719 김원우 기자 (wwkim@buddhopia.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30일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올 예산과 사업을 승인하고 화합을 다짐했다.

## “해외교류사업 적극 추진”

### 종단협 총회서 올 사업-예산 승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상)는 금년 예산을 4억여원으로 책정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해외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협의회는 1월 30일 한국의 집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25개 회원종단 20개 종단대표와 이사로 90여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 종단협은 일부 회원종단의 종단진흥회 활동 등 걸려있던 관계를 일소하기로 했다. 조계종측 이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조계종측 이사1명, 감시인이 사퇴할 한 가운데 종단협은 신임회장인 고상님을 중심으로 화합으로 불교 위상을 고양 시키자고 다짐했다.

**법·일반사업** 이날 종단협은 모두 14건, 종단협은 참여 종단 전체가 참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이에따른 예산은 4천만 원을 배정했다. 남북불교교류위원회, 환경보존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한 불교의 대사회적 대응 사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지원사업** 종단협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북한등도 지원사업과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구호사업도 폭넓게 벌인다는 방침이다. 각각 2천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 개최한 국민국회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종 기획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규사업** 신규사업으로 '승단 발전 연구사업'을 추진, 무분별한 종단 난립과 탁발행위 등의 근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종단협은 이날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승단발전 조사를 구성 등을 의결하기도 했다.

**해외교류사업** 해외교류사업으로는 한 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설치 및 대표단 초청, 한국불교수행체협 중국대표단 초청 등이 계획됐으며 4천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종단협은 작년 10월 29일 북경회의에서 합의된 3국 식량행사를 오는 4월 3일 실시키로 했다.

종단협은 총회에서 미납회비 97년도 분개지는 당장해 주기로 했으며 불교청담단 연합회를 부설단체로 등록키로 했다.

일연태 기자 (ytlim@buddhopia.com)

## 백양사주지 다정스님

조계종 중앙종교상스님은 3일자로 제18교구 본사 주지에 다정스님을 임명했다. 다정스님은 64년 백양사에서 장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7년 해인사에서 허수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0대 중앙종회의원과 개혁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다. 일연태 기자

## 국립공원 구역 조정 사찰 소유토지 제외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20개 전국국립공원 지역을 자연보존지역, 자연보호지역, 시설이용지역 등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원지역 주민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벌여 지난해 11월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작성'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일연태 기자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은 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개발허가 등에 따른 민원 해소와 공원 지역의 자원 가치 평가를 위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구역조정과 함께 효과적인 공원관리와 지정기준, 주민불편 해소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원 조정과 관련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90%를 차지하는 사할소유지에 대한 조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사할소유지 전체가 개발이나 규제완화와 관련 없는 보존 및 보호지역이기 때문이란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일연태 기자

**현대만평**

탁발 이제 그만...

## 조계종 교육포교원 인사

**교육부장-계성스님**  
**포교부장-현진스님**  
**포교연구실장-화암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일연스님은 2일 계성스님(전통사 총무)을 교육부장에 임명했다. 계성스님은 81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교육원은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지호스님을 임명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2일 포교부장에 현진스님(여의도포교

**계성스님** **현진스님** **화암스님**

원장)을 임명했다. 이어 3일에는 부장급인 포교연구실장에 화암스님(봉선사 총무국장), 포교국장에 범경스님(분당 기원정사 주지), 연수국장에 동운스님(용주사 교무국장),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범성스님(유입)을 각각 임명했다.

현진스님은 67년 화계사에서 법인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70년 비구계·보살계를 수지했다. 화암스님은 71년 월정사 성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75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 ‘제가불교운동 조직화’ 한목소리

범불교재가연대 7개도시 순회 간담회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재가자들의 힘을 키우자” 범불교재가연대 7개도시 순회 간담회 대가 1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충주, 광주, 전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진행한 제1차 순회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재가불교운동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이뤄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간담회에서는 진여회, 보현불교대학, 대불련 대전동문회 등이 가입했으며, 충주간담회에서는 선우 재전모임, 재천거사리회 등이 재가연대에 새롭게 합류했다.

재가연대 송상훈간사는 “이번 간담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재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차후 2차 순회 간담회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재가연대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잡아합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원음의 보고 잡아합경
화요일	능엄경(7,8권)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7,8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전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고급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 포교사 취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영합력사건 3매 ④ 불교고급대학졸업장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99년 2월 1일~ 99년 3월 6(토)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30명)			(서류전형)	

3. 개강일시 : 1999년 3월 8일(월)·9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을(매주 2강좌)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 본 연구원 사무국(중로구 견지동 13번지) ☎ 732-1206-8,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상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2년 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학년	교과목
1학년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반야사상법화사상·불교사회복지론·화엄사상
2학년	불교학개론·선종사·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의처 : ☎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9년 3월 6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법물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영합력사건 3매	99년 2월 6일(토)~ 3월 5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3:00 (통신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원서교부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